

## 일본해에 관한 호칭 문제(독일에서의 조사)

일본 외무성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베를린 주립 도서관 운타 덴 린덴관과 포츠담 광장관 및 고지도점에 보관된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지도에서, 일본해 해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일본의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 초엽부터 서구에 정착되어 있었다”라는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한국 측은 예전부터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9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모두 예사롭게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 독일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측은 베를린 주립 도서관 및 지도 수집가 슈트록크 씨가 소장하고 있는 59점의 지도를 조사하였다. 한국과 관련한 명칭은 50.8%에 해당하는 30점[Sea of Korea(16), East(Oriental) Sea(10), Sea of Korea, East Sea의 병기(4)]이었고, 일본과 관련한 명칭(Sea of Japan)은 5.1%에 해당하는 3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다<sup>1</sup>.

### 1. 조사 목적

(1)일본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해당 해역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일본해]라는 호칭이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 [일본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정착해 있었다는 점이다.

(다)지리적 명명법으로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2)상기 (나)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일본 국토 지리원 연구자 2명이 유럽에서 발행된 200점 이상의 고지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말엽까지는 이 해역에 대해 [중국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주 1). 또한, 외무성이 실시한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고지도 조사,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 러시아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상의 사실이 확인되었다(주 2).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는 19세기 초엽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탐험가가 일본해 주변을 탐험하여, 일본해가 일본 열도에 의해서 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지리적 형상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견해는 많은 연구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일본측 주장의 정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지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미 의회 도서관에서

<sup>1</sup> 「East Sea in Old Western Maps with Emphasis on the 17~18th Centuries」The Society for East Sea, Th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출판(2004년)

1300년부터 1900년까지 발행된 지도를 조사하여, 일본해의 호칭이 정착되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해당 해역에 관해서 호칭을 기재한 지도는 1,435 점이었다. 그 중 77.4%에 해당하는 1,110 점의 지도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앞서 언급한 영국, 프랑스의 조사 결과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주 3).

주 1 : 일본 외무성 작성 일본해 팜플렛 참조

주 2 : 일본 외무성 홈 페이지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및 “러시아에서의 조사” 참조

주 3 : 일본 외무성 홈 페이지 “미 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참조

(3) 일본 외무성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조사에 이어서, 독일에서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 세기에 발행된 지도에서 일본해에 관한 호칭이 정착되어 있었는지를 재확인하였다.

(4)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한국 측의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 “19 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 독일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 조사에 따르면, 한국 측은 베를린 주립 도서관 및 지도 수집가 니콜라스 슈트룩크 씨가 소장하고 있는 59 점의 지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관련한 명칭은 50.8%에 해당하는 30 점(Sea of Korea(16), East(Oriental) Sea(10), Sea of Korea, East Sea 의 병기(4)) 이었고, 일본과 관련한 명칭(Sea of Japan)은 5.1%에 해당하는 3 점에 불과했다고 한국 측은 주장하고 있다.

## 2. 베를린 주립 도서관에서의 조사

### (1) 조사 방법

본건의 조사는 재독일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실시했으며, 동 대사관은 베를린 주립 도서관 운타 덴 린덴관과 포츠담 광장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15세기 이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후	합계	비율 (%)
일본해	0	1	5	21	454	98	579	61%
일본해, 조선해 병기	0	0	1	3	3	0	7	1%
일본해, 조선해 병기	0	0	0	2	0	0	2	0%
일본해, 그외 명칭 병기	0	0	0	1	0	0	1	0%
동해	1	0	0	3	1	0	5	1%
오리엔탈해(동양해)	0	3	14	55	3	0	75	8%
조선해	0	0	2	153	34	1	190	20%
중국해	0	12	18	8	1	1	40	4%
동해, 조선해 병기	0	3	0	4	2	0	9	1%
중국해, 동해 병기	0	0	0	0	0	1	1	0%
오리엔탈, 중국해 병기	0	0	1	0	0	0	1	0%
오리엔탈, 조선해 병기	0	0	0	3	0	1	4	0%
오리엔탈, 인도양 병기	0	0	1	0	0	0	1	0%
그 외	0	5	15	7	1	5	33	3%
기재 없음	9	44	80	132	110	9	384	-
합계	10	68	137	392	609	116	1332	1

- ① 1,332 점 가운데, 384 점은 대상 해역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
- ② 대상 해역에 관해 명칭을 기재한 지도 948 점 중,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단독 표기한 지도는 579 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 ③ 19 세기에 작성한 지도 중에서 대상 해역에 관해 명칭을 기재한 지도는 499 점이었다. 그 중, 약 91%에 해당하는 454 점의 지도가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 ④ [동해(East Sea)]라고 기재한 지도는 불과 5 점이었으며, [동양해(Oriental Sea)]라고 기재한 지도는 75 점이었다.

3. 고미술 수집가 “니콜라스·슈트룩크(Antiquariat Nikolaus Struck)”의 소장품 조사

(1) 조사 경위, 방법

고미술 수집가 “니콜라스·슈트룩크”의 소장품에 대해서도, 재독일 일본 대사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해 해역을 포함하는 지도 총 79 점을 목시(目視)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 결과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비율
일본해	0	2	33	35	76%
동해	0	0	0	0	0%
조선해	0	6	3	9	20%
중국해	0	0	0	0	0%
오리엔탈해	0	2	0	2	4%
기재 없음	3	20	10	33	-
그 외	0	0	0	0	0%
합계	3	30	46	79	1

- ① 79 점 중에서, 33 점이 대상 해역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

- ② 대상 해역의 명칭을 기재한 지도 34 점 중에서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단독 표기한 지도는 35 점으로, 명칭을 표기한 지도의 76%를 차지하였다.
- ③ 19 세기에 작성한 지도 중에서 대상 해역에 관해 명칭을 기재한 지도는 36 점이었다. 그 중, 약 92%에 해당하는 33 점의 지도가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 ④ [동해(East Sea)]라고 기재한 지도는 없었으며, [동양해(Oriental Sea)]라고 기재한 지도가 2 점이었다.

#### 4. 결론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19 세기 초 이후, 다른 명칭을 압도하고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고지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본해]라는 표기가 일본의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 세기 초엽부터 서구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을, 독일에서의 고지도 조사를 통해서도 재확인하였다.